

양현종



윤석민

‘에이스 본색’

KIA 선발 양현종·마무리 윤석민 승리 합작 홈 6연패 끊고 분위기 반전...순위 싸움 재점화



KIA 마운드의 핵 양현종과 윤석민이 순위 싸움에 불을 붙인다.

지난 21일 안방에서 롯데를 상대한 KIA는 의미있는 승리를 만들었다. 이날 경기

기가 3-2로 끝나면서 선발 양현종의 승과 마무리 윤석민의 세이브가 처음으로 동시에 나왔다. 또 해줘야 하는 두 선수의 활약 속에 팀은 홈 6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KIA는 시즌 초반 롤리코스터를 타며 험난한 4월을 보내고 있다. 그만큼 불안불안했던 두 투수가 합작한 첫 승은 KIA에게 의미가 있다.

양현종은 이날 7이닝 3피안타 5사사구 6탈삼진 1실점으로 시즌 3승에 성공했다. 성적만 놓고 보면 눈부신 피칭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양현종은 2회 연속 볼넷으로 무사 1-2루를 허용하는 등 제구 난조로 위기를 자초했다. 볼도 많았고 직구 최고 스피드도 145km에 머무는 등 상대를 일방적으로 압도할 만한 구위는 아니었다. 하지만 초반 위기를 잘 넘긴 양현종은 포수 차일목과 호흡을 잘 맞추며 선발 임무를 완수했다.

윤석민도 세이브에 성공했지만 8회 아찔한 위기가 있었다. 3-1로 앞선 8회, 양현종에 이어 등판한 심동섭이 손아섭에게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허용하면서 무사 2루 상황에서 윤석민이 등판했다. 황재균을 유격수 직선타로 처리했지만 최준석 강민호에게 연속안타를 맞으며 점수는 3-2가 됐다. 대타 김대우와의 풀카운트 승부에서 몸쪽으로 잘 찰러넣은 공이

볼 판정을 받으면서 만루까지 가기도 했다. 위기에서 윤석민의 힘이 발휘됐다. 특유의 고속 슬라이더로 장성우의 방망이를 헛돌게 한 윤석민은 마지막 아웃카운트는 직접 처리했다. 9회는 12개의 공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양현종의 승과 자신의 세이브를 완성했다.

위기가 있었기에 두 투수의 위력이 더 돋보였던 승리. 무엇보다 서로와 팀을 위하는 마음이 만든 값진 승리였다.

양현종은 "(윤)석민이 형이 막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정말 집중해서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다. 팀의 연패를 끊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을 했고 윤석민은 "위기가 있었지만 현종의 승을 지키고 팀의 연패를 끊어서 좋다"고 웃었다.

윤석민은 이날 올 시즌 처음으로 2이닝을 소화했다.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고 팀의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윤석민과 이대진 코치가 2이닝을 준비해두었던 상황. 윤석민은 가까이 일찍 마운드에 올라 값진 세이브를 올렸다.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연패 탈출을 위한 마음으로 7이닝을 막아낸 선발과 팀 승리를 위해 2이닝을 책임져 준 마무리. 모처럼 손발이 맞았던 마운드, 여기에 윤석민의 부활을 위한 과제로 꼽혔던 직구의 움직임도 희망을 더한다. 윤석민은 이날 최고 147km의 직구를 좌우로 매섭게 쏘아넣었다. 아드치외의 승부에서는 직구 3개로 핫스팟 삼진을 만들기도 했다. "직구 스피드가 올라오고 있다. 좋아지는 것이 느껴진다"며 윤석민도 자신감을 얻었다.

에이스 본색을 발휘한 양현종과 윤석민이 따뜻한 봄을 예고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데아웃 특·특

이성우, 타격 칭찬에 "마음은 늘 5타수 5안타"

▲"현역 이후 처음 쳐봤어요" = 이범호가 22일 특별한 공을 쳤다. 전날 나지완과 특타에 나선던 이범호는 이날도 일찍 배팅게이지에서 서서 타격감을 올리기 위해 공을 들었다. 부진 탈출을 위해 이를 악문 두 사람을 위해 특별한 배팅 투수가 등장했다.

왕년에 '싸움닭'으로 명성을 날렸던 조계현 수석코치가 직접 공을 던져주며 두 선수의 부진 탈출 도우미로 나섰다. 이범호는 "현역 이후 (수석님 공을) 처음 쳐봤다"며 특타 소감을 밝혔다. 이범호는 2000년 한화를 통해 프로에 데뷔했고, 조계현 수석코치는 2001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마음은 5타수 5안타요" = 이성우는 요즘 팀에서 공격형 포수로 통한다. 지난 15일 LG와의 경기에서 3안타를 때려내는 등 중요한 순간에 좋은 타격을 보여주며 말도란 같은 4타점도 올렸기 때문이다. 3안타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많이 치면 칠수록 좋은 것 아닌가. 네 번째 타석에서는 욕심이 나기도 했다"는 이성우는 "마음은 5타수 5안타"라고 웃었다.

▲"네 등록됐습니다" = 신인 김호령이 처음으로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전날 실력 점검을 위해 1군에 합류해 훈련을 소화했던 외야수 김호령은 22일 김주찬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연

트리어에서 빠지면서 바로 1군에 합류했다. 긴장된 표정으로 훈련을 하던 김호령은 "(엔트리) 등록이 됐느냐?"는 조계현 수석코치의 이야기에 수줍게 답을 하며 웃었다.

김주찬의 엔트리 말소에 대해 김기태 감독은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고를 받았다. 1군에 있으면 대타로도 쓸 수 있겠지만 손목도 좋지 않기도 하고 괜히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다. 완벽한 몸상태가 중요해서 차분하게 재활을 하도록 했다. 복귀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밀어 보시죠라고 하더라" = 22일 경기 전 취재진과 만난 김기태 감독은 윤석민의 이야기가 나오자 쑥스럽게 웃었다. 전날 윤석민의 2이닝 기용 가능성에 질문을 받은 김 감독은 "이대진 투수 코치가 2이닝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또 전체적인 팀 운영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8회 2점차 상황에서 심동섭이 흔들리면서 윤석민이 일찍 마운드에 올랐다. 김 감독은 22일 "고민을 했는데 (투수코치가) 밀어 보시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잘 해줘서 고맙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터졌다 강정호

캡스전 3타점 2루타 등 활약... 팀은 패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이틀 연속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3타점 2루타로 화려한 첫 타점 신고식을 치렀다. 이날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첫 타점, 첫 장타(2루타), 첫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강정호는 22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6번타자 유격수로 선발출전, 5-5로 맞선 7회 말 2사 만루에서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싸움이 중월 2루타를 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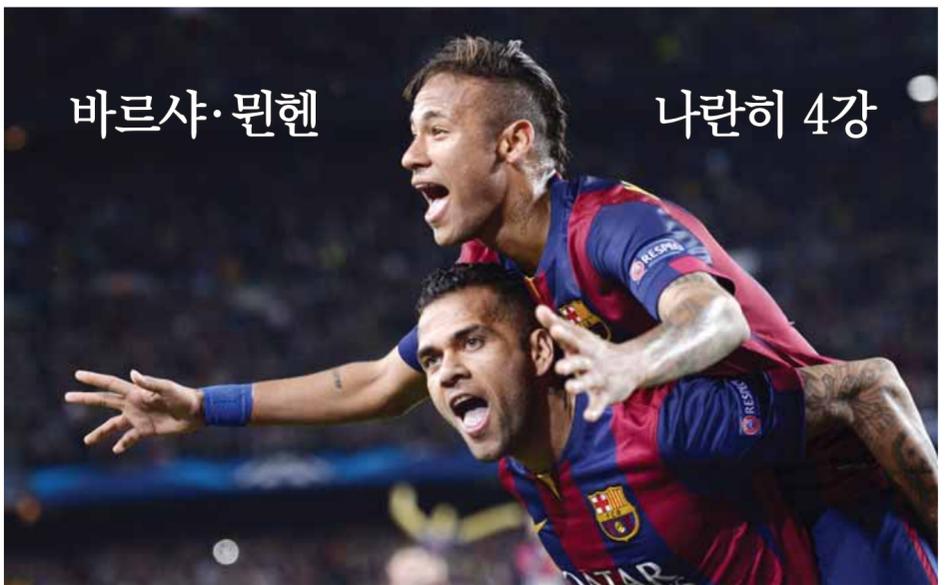
컵스는 앞서 2사 1, 3루에서 홈런 포함 2안타를 기록하던 5번타자 스타링 마르테를 고의사구로 거르고 강정호를 택했다. 그러나 강정호는 컵스 투수 제이슨 모테의 2구째인 시속 약 154km 속구를 공략해 가운데 담장을 원바운드로 때리는 2루타를 만들었고, 주자 3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며 점수 차를 8-5로 벌렸다.

앞서 강정호는 2-3으로 뒤진 4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전 안타를 기록했다. 지난 13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메이저리그 데뷔 안타를 친 이후 5번째로 출전한 경기, 9타석 만에 나온 2호 안타였다.

전날 강정호는 3타수 무안타 1삼진에 그쳤지만, 이날은 삼진 없이 4타수 2안타 3타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타율을 0.077에서 0.176(17타수 3안타)으로 끌어올렸다. 유격수로서도 무난한 수비력을 보였다.

강정호의 2루타로 피츠버그는 7회말까지 8-5로 앞섰지만, 8회초 1점, 9회초 3점을 잃고 8-9로 다시 역전당했다.

/연합뉴스



바르샤·뮌헨

나란히 4강

유럽 챔스, 파리 생제르맹·FC포르투 대파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21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준준결승 FC포르투(포르투갈)와의 홈 2차전에서 6-1로 크게 이겼다. 지난주 원정 1차전에서 1-3으로 져 탈락 위기에 내몰렸던 바이에른 뮌헨은 이날 대승으로 1,2차전 합계 7-4로 FC포르투를 따돌리고 준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1차전 패배를 당한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부터 FC포르투를 강하게 몰아붙여 5-0으로 전반을 마무리했다. 전반 14분 티아구 알

칸타라의 선제 득점을 시작으로 21분에 제롬 보야텡, 27분에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36분에 토마스 뮐러의 골이 쉴새 없이 터졌고 40분에는 레반도프스키가 한 골을 추가하며 5-0을 만들었다. 두 팀은 후반에 한 골씩 주고받았으나 이미 전반에 워낙 격차가 벌어진 탓에 바이에른 뮌헨이 4년 연속 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랐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날 부상 때문에 프랭크 리베리, 아리언 로빈 등이 결장했지만 FC포르투가 좁혀잡 하프라인을 넘어오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대를 강하게 압박했다.

FC바르셀로나도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을 2-0으로 꺾고 4강에 합류했다. /연합뉴스